

#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지역 여성 디자이너들의 '두근두근 작업리뷰'

## Something Sweet Survives: 'Exciting Work Reviews' by Local Female Designers

저자 Author: 전가경 Kay Jun

사월의눈 대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Founder of Aprilsnow Press, Adjunct Professor of Konkuk University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자유 기고 Articles from Free Contribution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172173

### 들어가기

2021년 4월 17일, 대구 사월의눈에서는 FDSC(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이하 FDSC) 대구+경상도 기반 지역 여성 디자이너의 첫 모임이 결정되었다. FDSC는 그래픽 디자인계의 성차별적 관행에 맞서 페미니스트의 시선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2018년에 결성된 모임이다.<sup>1</sup> 이런 변혁적 포부에도 활동 초기 다수의 행사는 서울 중심이었다. 커뮤니티 내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전 기반으로 활동하는 FDSC 회원인 신선아와 정은지를 통해 처음 이뤄졌으며, 이들의 제안으로 2020년 2월, 커뮤니티 내 첫 지역 지부인 충청 지부가 마련되었다. 이후 이들은 'SEE-SAW'라는 이름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내 여성 디자이너들의 삶과 이야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sup>2</sup> 오늘날 지역 담론은 한국 내 가장 큰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이지만, 그래픽 디자인 커뮤니티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제였으며,<sup>3</sup> 그 이유는 그래픽 디자인계의 서울 중심적 사고의 견고함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SEE-SAW' 활동은 오늘날 디자인계에서 유통되는 지역 담론을 훨씬 앞서갔던 당돌한 문제 제기이자 행동주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자극받은 전가경은 FDSC 회원이자 대구 기반 사월의눈 대표로서 대구 지역 디자이너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오랜 고심 끝에 FDSC의 지역 모임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대구 기반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모집, 2021년 4월 17일, 대구 사월의눈에서 첫 대구 지부 모임을 결성했다. FDSC 충청지부 활동을 선구적으로 선보인 신선아, 정은지 디자이너의 조언과 협조가 없었더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자리였다. 모임에서 바로 가입을 결심한 대구 기반 디자이너들의 기쁨도 잠시, 결성 이후 별다른 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서 일차적으로나마 서로 간의 작업에 대한 소개와 리뷰가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두근두근 작업리뷰'라는 이렇게 시작된 FDSC 경성 지부 내 소모임의 이름이자 활동이었다.

모임은 2024년 3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매회 두 명의 디자이너가 돌아가며 작업을 소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 등을 공유했다. 일반적인 작업 소개가 결과물 중심인 데 반해, '두근두근 작업 리뷰'는 과정에 초점을 둬으로써 고민과 피드백 및 조언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가까웠다. 대구 회원 11명과 김해 회원 1명이 함께 꾸렸다. 무엇보다 이 모임은 지역에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넘어 지역 기반 여성 디자이너에 관한 새로운 발견이라는 의미가 컸다. 특히, 디자이너마다 담당하는 디자인 분야가 다르다 보니(문화예술, 제로웨이스트, 브랜딩, 방송 디자인, 북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 1 FDSC 설립취지 참고. <https://fdsc.kr/notice/483> (2024.12.5.)
- 2 이 활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notion.so/fdsc/FDSC-SEE-SAW-e6bddd97e56f48a189ea13b4d10f4da9> (2024.11.18.)
- 3 서울 중심주의와 지역 디자인에 대한 고찰 및 발언은 지난 몇 년 사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디자인 생태계 안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있다. 다음은 관련지어 거론할 수 있는 일부 문헌이나 행사이다. 시야를 넓히면 이 목록에 보다 많은 자료를 추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전가경·정재완, '365일, 서울의 날', 《월간 디자인》, 2010년 6월호. <https://m.blog.naver.com/honeyshy1/100164585525> (2024.10.5.)  
- 신선아 & 정은지, FDSC SEE-SAW, 2021, <https://fdsc.kr/category/FDSC%20SEE-SAW> (2024.11.19.)  
- 포럼 '대구는 시각디자이너를 왜 활용하지 못하는가', 2021년 5월 13일, 20일  
- 정재완, 「대구에 '내려'와서 본 그래픽 디자인」, 『Designed Matter: 디자인된 문제들』, 쪽프레스, 2022. pp.129-144  
- 민동인 기획, 『스몰 스튜디오, 스몰 신: 대전 대구』, 좀비출판, 2023  
- 포럼 '지역의 시각디자인을 말하는 몇 가지 방식', 2024년 5월 25일, 대구 무명당

투고일: 2024년 12월 30일

심사완료 및 게재확정일: 2025년 1월 27일

게재일: 2025년 2월 28일

Received Date: December 30, 2024

Accepted Date: January 27, 2025

Published Date: February 28, 2025

pp.172-185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연구와 저술 등) 매 모임은 다채로운 작업과 사연들로 가득했다. 매회 광주, 대전, 서울, 구례, 포항 등 각 지역 기반 회원들도 참관했다.<sup>4</sup>

### Introduction

On April 17, 2021, the first gathering of FDSC (Feminist Designer Social Club) members based in Daegu and the greater Gyeongsang region took place at Aprilsnow Press in Daegu. Originally founded in 2018, FDSC emerged as a collective dedicated to challenging the entrenched gender biases within the graphic design industry and advancing alternative approaches through a feminist lens. Despite its transformative vision, the organization's early activities we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in Seoul. The first significant critique of this Seoul-centric structure arose within the community, spearheaded by Shin Sunah and Jeong Eunji, FDSC members based in Daejeon. Their concern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ty's inaugural regional chapter—the Chungcheong Chapter—in February 2020. This initiative further materialized through 'SEE-SAW', an interview project that sought to amplify the narratives and experiences of women designers working outside Seoul. The issue of regionalism remains one of South Korea's most prominent socio-political discourses, yet it has largely been overlooked within the graphic design community—a neglect rooted in the field's deeply ingrained Seoul-centric perspective. Against this backdrop, 'SEE-SAW' emerged as a bold and pioneering intervention, not merely as a critique but as a form of activist practice that anticipated contemporary regional discourses within the design field.

Inspired by these activities, Kay Jun, an FDSC member and the director of Aprilsnow Press, began contemplating the need to discover and connect with designers in the Daegu region. After much deliberation, she initiated a call for Daegu-based graphic designers who shared FDSC's vision. This effort culmin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FDSC Daegu Chapter meeting on April 17, 2021, held at Aprilsnow Press. Such a gathering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guidance and support of designers Shin Sunah and Jeong Eunji, who had spearheaded the pioneering activities of the FDSC Chungcheong Chapter. The excitement among Daegu-based designers who immediately decided to join the chapter was, however, short-lived, as little activity followed the initial meeting. This lull led to a shared understanding that, at the very least, members needed a space to introduce and discuss each other's work. Thus was born 'Exciting Work Reviews', a sub-group within the FDSC Daegu Chapter, dedicated to fostering dialogue and collaboration through work-sharing sessions.

The meetings were held five times in total, from early March to mid-May 2024. During each session, two designers took turns presenting their work, sharing their concerns and challenges along the way. While conventional work presentations typically focus on final outcomes, 'Exciting Work Reviews' centered on the creative process itself. This approach transformed the gatherings into a space for mutual encouragement and support through

4 작성된 원고는 2024년 모임을 기준으로 했다. 모임 종료 이후 인사 인동이나 이직이 있는 회원이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두근두근 작업리뷰'를 위해 흔쾌히 장소를 내어주신 대구 인디053과 아이디어두잇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또한, 매회차 진행을 맡은 안지경 디자이너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174 | 175

thoughtful discussions, feedback, and advice. The group was composed of 11 members from Daegu and one from Gimhae. Beyond fostering camaraderie among members, the initiative held significant value as a platform for uncovering and celebrating the work of women designers based in regional areas. The diversity of design fields represented (ranging from cultural arts, zero-waste initiatives, and branding, broadcast design, book design, illustration, research, and writing) infused each session with a rich tapestry of projects and personal narratives. Moreover, designers from other regions, including Gwangju, Daejeon, Seoul, Gurye, and Pohang, participated as observers, further enriching the dialogue.



(왼쪽위) 김미정, 모루 매뉴처복성로 포스터, (2020), 홀라  
(오른쪽) 안지경, 미루운동중간결산, (2022), 의뢰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사진 ©정운  
(왼쪽아래) 이화경, 종이상점 WIYP 공간 운영, (2021-)

1회: 이화경(트래블리) + 윤서희(전 아트스페이스 루모스)

일시, 장소: 2024년 3월 2일, 김해 종이상점

참석자: 강경민, 강수경, 김민정, 김유진, 박연미, 안지경, 유아람, 윤서희, 이신혜, 이화경, 전가경, 최지선



**윤서희** 디자이너는 대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에서 사진 기반 인쇄물을 책임진다. 그중 대부분은 사진 책이다. 아트스페이스 루모스는 대구의 몇 안 되는 사진 중심 갤러리다. 이곳에서는 각종 전시나 행사에 맞춰 별도의 사진 책 단행본이 발행되고 있는데 그간, 이 인쇄물을 윤서희 디자이너 홀로 디자인해 왔다. 수도권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한, 디자인 비전공자 출신이다. 학부 후 대구로 내려와 우연한 기회에 루모스와 인연을 맺게 되어 진행한 첫 업무가 곧 첫 인디자인 작업이었다. 사수가 없고 유일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림에도 제본, 인쇄, 종이 선택 등에서 기존 관습에 머무르지 않는 시도를 거듭하며 근사한 작품집을 디자인하고자 노력한다.

**이화경** 디자이너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대학에서 디자인과 광고홍보학을 공부한 후 바로 취업하는 대신, 좋아하는 여행을 즐기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 트래블리라는 팀을 꾸렸다. 트래블리는 부산과 경남 기반으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곳으로, 코로나 시기에 김해 봉황동에 정착했고, 현재는 로컬 브랜딩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첫 번째 결과물로 김해에서 카페이자 문구샵인 '종이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황동의 콘텐츠를 발굴하는 로컬 브랜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봉황로그』를 만들고 있다. 윤서희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팀 내에서 유일한 디자이너인 탓에 주변에 디자인 관련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다. 기획에서부터 편집, 촬영, 삽화 및 디자인까지 일인 다역을 소화하고 있다.

# 176177

2회: 박연미(프리랜서 북디자이너) + 김민정(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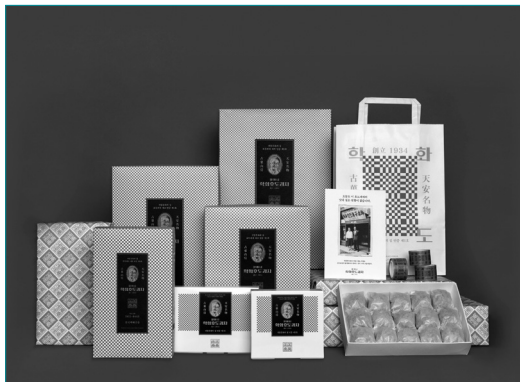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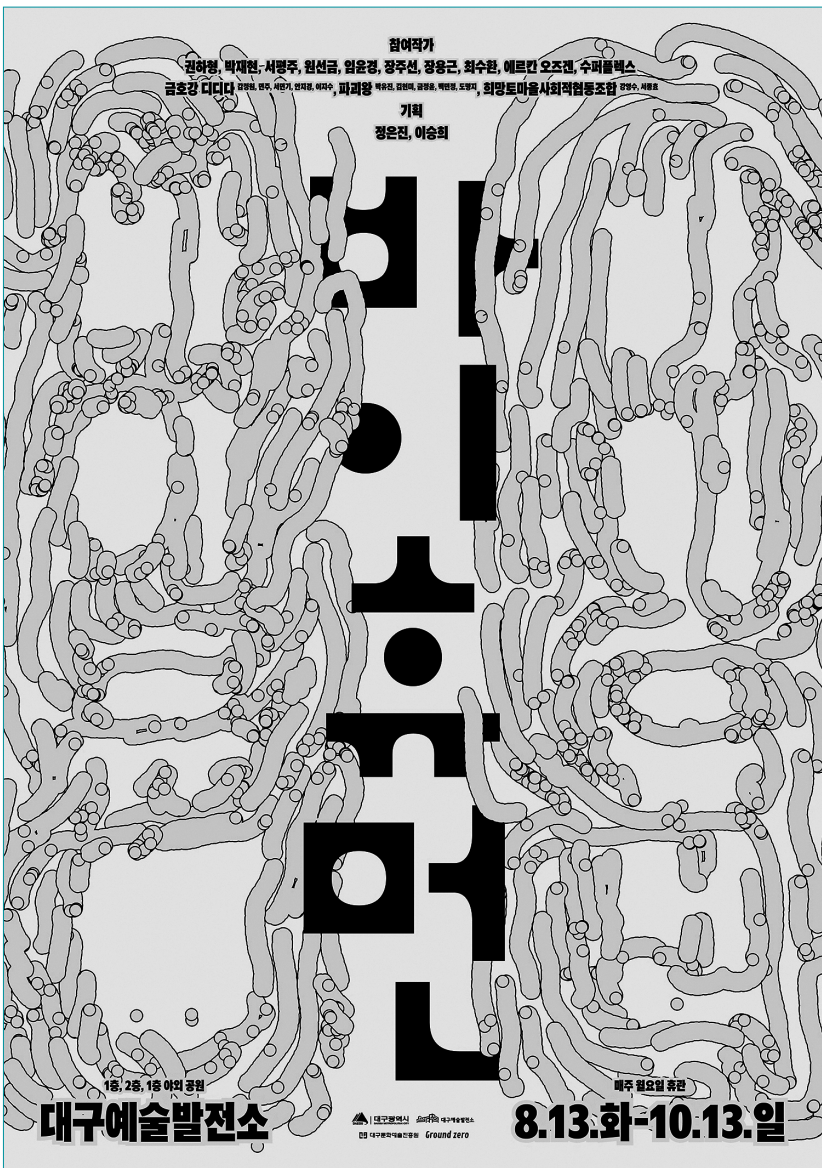
일시, 장소: 2024년 3월 16일, 대구 인디053

참석자: 강경민, 김민정, 김유진, 박연미, 신선아, 안지경, 유아람, 윤서희, 이신혜, 이화경, 이혜민, 전가경, 정은지, 조연오



**박연미** 디자이너는 전주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졸업 후에는 시공사, 민음사 등을 거쳤다. 현재는 프리랜서 북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배우자의 이직으로 4인 가족이 대구에 정착했다. 다년간의 북디자인 작업으로 수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으나, 이날은 특별히 B컷을 중심으로 작업 이야기를 진행했다. 박연미 디자이너는 디자인이란 타협과 수렴의 과정이라고 말하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디자인적으로 정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때 자신의 페이스를 팽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시안 작업을 하며 편집부에서부터 마케팅, 때에 따라서는 운영진까지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의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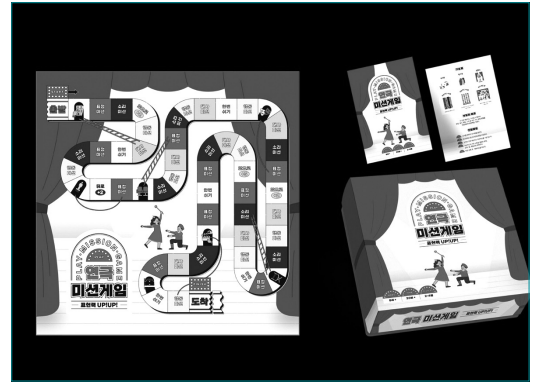
**김민정** 일러스트레이터는 대구에서 시각디자인을, 독일에서 코믹과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했다. 독일 유학 후에는 대구로 복귀하여 웅진, EBS, 미래엔 등의 클라이언트와 함께 출판 기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주로 진행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다수 진행하는 만큼, 어린이 대상 그림에 적용되는 여러 까다로운 삽화 관련 요구 사항에 대해 알려줬다. 특히, 다양한 관계자들과 다수 소통해야 하는데, 출판사 대표뿐만 아니라 책 디자이너, 편집자 등 다자 대화가 많아 업무 수행이 쉽지 않다. 지역에 있지만 꼭 지역에만 근거지를 두고 활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공이 디자인이었던 만큼 디자인 작업에 대한 갈망도 있다. 독립출판인 브렉퍼스트클럽도 운영한다.



# 178179

한국디자인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자유 기고 Articles from Free Contribution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 178쪽

- (왼쪽위) 이신혜, 바이휴먼 전시 포스터, (2024), 의뢰인: 그라운드제로
- (왼쪽아래) 이화경, 봉황 로그 매거진, (2023, 2024), 의뢰인: (주)여행의미래
- (오른쪽아래) 유아람, 브랜드 리뉴얼, (2023), 할머니학회 호도과자

## 179쪽

- (왼쪽위) 전가경, 이서오십시오, (2024), 사월의눈 기획출판
- (왼쪽아래) 강경민, MZ무배당기후위기바로행동보험, (2024), 개인작업
- (오른쪽위) 이신혜, 환상도시유람단: 프로젝트 홍보 포스터, (2022), 의뢰인: 홀라
- (오른쪽가운데) 김유진, 연극미션게임, (2022), 개인 의뢰
- (오른쪽아래) 전가경, 펼친 면의 대화, (2024), 저술

3회: 안지경(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 전가경(사월의눈)

일시, 장소: 2024년 3월 30일, 대구 인디053

참석자: 강수경, 김민정, 김유진, 박연미, 손소영, 안지경, 유아람, 이신혜, 이화경, 전가경, 조연오



**안지경** 디자이너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했다. 졸업 후 서울에서 디자인 공부 후 대구로 복귀한 사례. 시민단체, 관공서, 문화예술 영역 등을 아우르며 기획자이자 디자이너로서 활동하고 있다. 작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다양한 인접 예술 분야 작가들과의 교류와 협업이다. 근래 '팔현습지를 지키는 예술행동'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팔현반상회』라는 희곡집도 디자인했다. 영화감독, 사진가, 음악인 등으로 구성된 예술행동에 그래픽적 발언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셈. 자신을 디자이너로서 인식하는 데 주저했지만, 이제는 디자이너를 자신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FDSC 대구지부 결성 이후 FDSC 운영진으로 활약하며, 여성주의 목소리를 내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전가경** 디자인 저술가는 학부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시각디자인을 공부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배우자의 이직으로 대구로 옮겨오게 되었고, 현재는 10년 차 대구 시민이 되었다. 이후 자연스럽게 출판 활동인 사월의눈도 대구에 근거지를 두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실무'로서의 디자인을 수행하고 있진 않지만, 아트디렉팅과 기획 차원에서 디자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본다. 당일 자신의 활동을 '사월의눈'(출판 기획), '강의' 및 '저술과 연구'로 분류하여 설명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오랜 시간 연구해 온 한국 시각디자인 역사 관련 단행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 180181

4회: 김유진(TBC) + 유아람(아이디어두잇)

일시, 장소: 2024년 4월 13일, 대구 아이디어두잇

참석자: 김민정, 김유진, 박연미, 안지경, 유아람, 윤서희, 이석주, 이신혜, 이화경, 전가경, 조연오



**김유진** 디자이너는 제품 디자인 공부 후 현재 대구 지역 방송국인 TBC에서 5년 차 일하고 있다. 방송국 디자이너인 만큼 주 업무는 방송 CG 제작이다. 방송 CG는 보도 CG와 편성 CG로 나뉜다. 전자는 뉴스 관련, 후자는 일반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뜻한다. 그 외 업무로 '비디오월' 세팅 등도 있다. 방송용 화면이다 보니 일반 그래픽 디자인과 다르게 애프터이펙트와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위로 사수 한 분만 있다 보니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다. 방송국 외에 개인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보통 저녁 7시가 퇴근이다. 보드게임 디자인, 브랜딩 및 청년연구 프로젝트 등 소소한 개인 디자인 작업도 병행한다.

**유아람** 디자이너는 디자인 회사 아이디어두잇 소속 메인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다. 아이디어두잇은 대구 기반의 브랜딩 디자인 기업으로 대구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총 7명이 일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를 메인 디자이너와 보조 디자이너 두 명이 전담하는 방식이다. 대구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서울에 갔다가 두 달 만에 내려와 쉬 후 대구 기반 브랜드 회사인 캘리브랜딩에서 10년 일했다. 그러다 미국에 잠시 건너간 뒤, 대구로 돌아와 현재는 아이디어두잇에서 4년 차 디자이너로 일한다. 클라이언트는 대구가 많지만, 전국에서도 의뢰가 들어온다. 자부심을 느끼는 브랜딩으로 천안의 '할머니학화 호두과자'가 있다. 클라이언트와 업무 계약할 때 파트너십을 유지하여 브랜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82183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자유 기고 Articles from Free Contrib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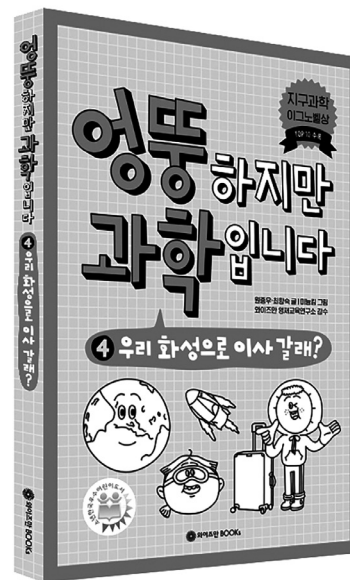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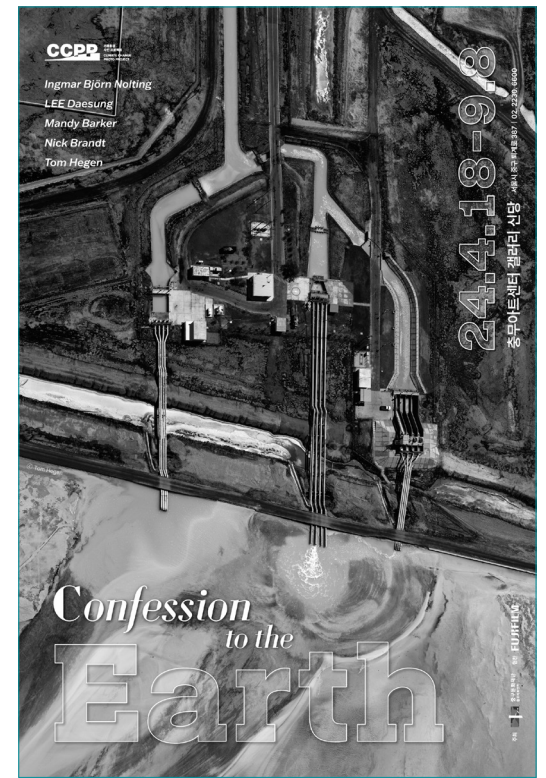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사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 182쪽

- (왼쪽위) 박연미, 낭비 없는 밤들, (2024), 마음산책
- (왼쪽아래) 유아람, 아이디어두잇 10주년 전시 포스터, (2023)
- (오른쪽위) 박연미, 여전히 미쳐 있는, (2023), 의뢰인: 북하우스
- (오른쪽아래) 윤서희, The Resonance of Trees 전시 포스터, (2021), 의뢰인: 주벨기에한국문화원

→ 1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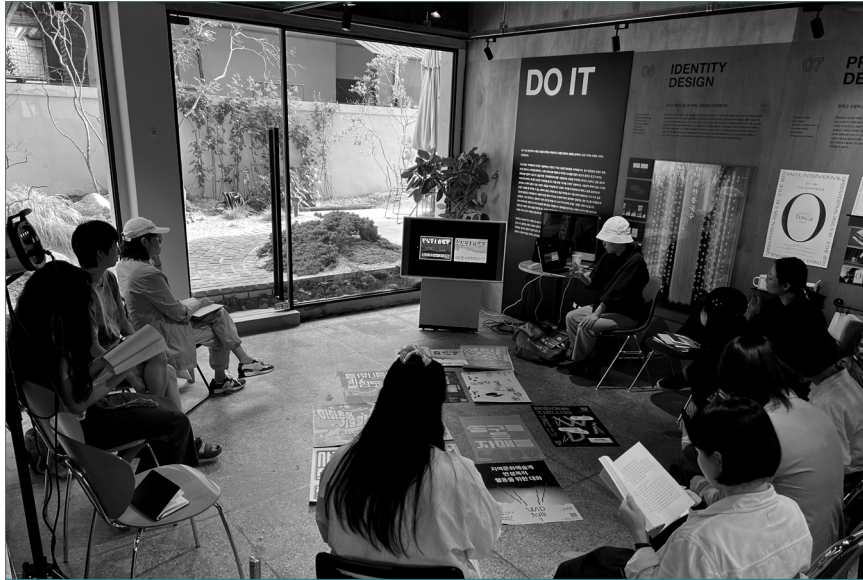
- (왼쪽아래) 김민정, 영동하지만 과학입니다, (2022), 의뢰인: 와이즈만
- (오른쪽위) 윤서희, Confession to the Earth 전시 포스터, (2024), 의뢰인: 충무아트센터
- (오른쪽아래) 안지경, 단행본 얼룩덜룩 마음 옆 작은 귀, (2023), 의뢰인: 시의웃



5회차: 강경민(더커먼) + 이신혜(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일시, 장소: 2024년 5월 11일, 대구 아이디어두잇

참석자: 강경민, 김민정, 김예진, 김유진, 박연미, 안지경, 유아람, 윤서희, 이신혜, 이화경, 전가경, 조연오



**강경민** 디자이너는 대구에서 제로웨이스트샵이자 비건 식당인 더커먼을 운영한다. 대구에서 동양화를 공부한 후 서울에서 세트 디자이너로서 일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실에 눈을 뗀고, 이는 그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내가 지키는 것을 망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절박했다. 영국의 녹색 도시인 브리스틀에서 1년간 체류하며, '기부 가게'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저탄소 식탁을 실천하게 되었다. 환경 및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운영 목표임에도 수익 또한 내야 하다 보니 여러모로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가 많다. 동물권 운동인 '브레멘 음악대'나 지역 농산물을 살 수 있는 '푸르르르르', 최근에는 '기후위기 프로젝트' 등을 기획했다.

**이신혜** 디자이너는 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후,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대구 작은 서점 이층책방에서 책 모임을 통해 책방 주인인 최윤경 대표와 알고 지내다가 그의 제안으로 디자인 일을 받아 디자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는 FDSC가 결성된 때와 겹치는 시기이기도 했다. 최윤경 대표가 있었던 '어나더스Others' 기획 페미니즘 행사인 '우리 목소리' 홍보물을 디자인했고, 이때 여성 디자이너가 만든 폰트를 사용했다. 대구 기반 여성 창작 집단인 홀라의 '도시공원 기록 활동' 관련 디자인도 중요하다. 로고 디자인에서부터 전시 및 워크숍 포스터, 관련 책자 등을 두루 디자인했다. 작업이 자유로웠다. FDSC 지역지부를 계기로 자신이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한국디자인사학회 Design History Society of Korea  
자유 기고 Articles from Free Contribution

엑스트라 아카이브 10 Extra Archive 10  
디자인연구 Journal of Design History

# 184185

## 나가며

FDSC 내 지역 소모임이었던 '두근두근 작업리뷰'는 지역 여성 디자이너들의 정면과 측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면에선 표면으로 드러나는 서로 간의 디자인 작업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측면에선 다분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고민과 과정 중심의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자신을 디자이너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이에게 이 모임은 자신에게 '디자이너'라는 정체성을 부여한 활동이기도 했으며, 일터에서 대부분 홀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동일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현대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 모임의 성과는 많은 여성 디자이너가 존재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의 재발견에만 있지 않았다. 함께 감상한 작업이 무척 알차고 멋졌다. 다수의 미디어가 압도적으로 서울에 집중되고, 여전히 인맥과 학맥으로 이뤄진 디자인 생태계 탓에 서울로부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반 이상 기차로 떨어진 곳의 디자이너를 찾고 발굴하기란 별도의 예민한 감각이 아니고선 쉽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좋은 디자인이 서울 바깥 지역에서도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는 역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수도권 바깥의 디자이너에게도 시선을 돌려야 함을 의미한다. 서울과 지역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분리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분법이 실상은 착시이자 굴절된 현상이라는 것을, 나아가 서울 중심적 사고관의 폐해임을, 그래서 이분법의 해체를 통해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자이너를 또한 초지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한 자각 때문이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때에 따라서는 피드백도 과감하게 던졌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다소 긴장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무엇보다 진솔하게 서로의 마음을 엿보고 돌본다는 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다. 지역의 외로운 일터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길 희망하며, 박연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책의 제목,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를 격언으로 삼으며 리뷰를 마친다. 🎧

### 부록: 후기의 일부

"작업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번아웃이 왔는데, 모임 계기로 좋아졌다."

"매 회차 너무 공감하는 게 많았고, 대구라는 도시를 알게 되었다."

"혼자 일하다 보니 스스로 보잘것없고, 작아지곤 했는데, 자신감을 얻었다."

"얻은 게 많은데 나눌 수 있다면 앞으로 함께 더 나누고 싶다. 지역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도 나 자신에게 박한 사람인데, 본인을 후하게 인정해 주면 좋겠다."

"회사에 다녀도 회의만 할 뿐 정작 작업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니 아쉽다."

"주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는 게 처음. 정말 신나고 기다려지는 모임이었다. 신기했다."

"대구에 사는 게 지루하다고 느껴졌는데, 앞으로는 재밌어지지 않을까."

"내가 섞일 수 있을까 싶어서 모임 초반엔 두려웠는데,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받았다. 제일 목마른 게 충족되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